





|             |   |   |
|-------------|---|---|
| 투자자<br>유의사항 | <p>(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p> <p>(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p>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li> <li>· <b>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li> <li>·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li> <li>· <b>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b></li> <li>·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li> </ul> |   |
| 주요투자<br>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원본손실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투자신탁의 운용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 주식가격 변동위험   | 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
|             |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시장위험  |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   |  |  |
|-------------------|---|--|--|
| 매입<br>방법          | 오후 3 시 30 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br>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br>제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br>적용하여 매입                              | 환매<br>방법   | 오후 3 시 30 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br>환매청구일로부터 제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br>기준가격을 적용. 제 4 영업일(D+3)에 관련 세금<br>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                   | 오후 3 시 30 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br>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br>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br>적용하여 매입                             |  | 오후 3 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br>환매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br>기준가격을 적용. 제 4 영업일(D+3)에 관련세금<br>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 환매<br>수수료         | 없음  |  |  |
| 기준가               | 산정방법  |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지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지구 총좌수<br>-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syfund.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br>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  |
| 과세                | 구 분   | 과세의 주요내용   |  |
|                   | 집합투자지구  | 집합투자지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
|                   | 수익자   |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지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br>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br>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br>됩니다. |  |
| 전환절차<br>및 방법      | 해당 사항 없음  |  |  |
| 집합투자업자            | 신영자산운용(주)<br>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 길 6 (대표전화 : 02-6711-7500, 홈페이지 : www.syfund.co.kr)                                |  |  |
|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 모집·매출 총액   | 10 조 좌   |
| 효력발생일             | 2022 년 7 월 1 일  | 존속 기간  |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www.syfund.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  |  |
| 참조                |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3 부 1. 재무정보 (36 페이지) 및<br>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46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집합투자지구<br>의<br>종류 | 이 집합투자 지구는 종류형 집합투자 지구입니다. 집합투자 지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br>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 지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종류(Class)   | 집합투자지구의 특징   |  |
|                   | 판매  | 수수료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

|  |       |             |   |
|--|-------|-------------|---|
|  | 수수료   | 선취(A)       | 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b>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b>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수수료 미징구(C1)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b>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b>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수수료 후취      |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며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1)을 역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b>판매수수료미징구형(C1)보다 지속적으로 낮은 총비용을 지불</b>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판매 경로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b>  |
|  |       | 온라인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
|  |       | 온라인 슈퍼(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보수체감(CDSC)  |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
|  |       | 개인연금(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퇴직연금(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syfund.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syfund.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syfund.co.kr)



QR코드를 스캔 해보세요.